

잠재력 가진 베트남經濟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어설픈 개혁으로 경제지표 악화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생산활동의 정체와 세자리 단위의 인플레이가 심해지다가 하면 경상수지 악화 및 대외채무잔액 증가 등이 겹쳐 매크로적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이다.

이러한 경제부진의 주요원인으로는 자연재해를 꼽을 수도 있지만, 역시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점이 지적된다.

즉 1982~84년에 黨指導部가 재차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강화시킨 것이 실패정책의 첫째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이 시도로 인해 북위 17도 아래의 남부지역이 생산의욕의 감퇴를 빚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이 통합된 후 베트남경제가 이룩한 실적은 남쪽에서 사회주의화를 강화했는가 완화했는가의 정도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합후 개시된 제2차5개년계획(1976~80)의 실적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그 기간은 평화시였지만, 생산량감퇴와 국민생활수준 저하가 계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두말할 것 없이 사회주의로의 개조 강행과 中國人화교의 축출이 남부지역 활력을 짓눌러버린 때문이었다.

이를 반성하여 베트남정부는 79년 여름부터 「신경제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영화/집단화/중앙집권화를 하지 않고 그대신 분권화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실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업부

문에서 생산물청부제의 확대, 그리고 농산물 정부수매 가격의 인상 ▲국영기업의 자주권 확대 ▲민간기업이나 상업인의 능력활용에 힘을 기울였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회복이 급진전되어 1981~84년에는 연평균 7%의 실질성장을 이룩하고 식량생산도 83년에 이르러 자급자족 수준에 달했다.

다음, 경제정책 실패의 둘째 요인은 격심한 인플레이가 임금 및 가격의 인센티브體系를 왜곡시킴으로써 농민과 기업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격심한 인플레이는, 생산/수출의 증가요인이었던 정부보조금을 사감되게 함으로써 1981~82년에 걸쳐 나타난 가격/임금의 대폭인상 경향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하여 1985년 9월에 시행된 가격·임금·통화개혁의 미숙함이 인플레이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85년말 이후 베트남經濟의 매크로적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부문의 대변화를 간과할 수는 없다. 즉 경제개혁 과정에서 분출된 베트남경제의 쌓이고 쌓인 고름이 드디어 黨지도부의 인사쇄신을 가져오고, 특히 이번에는 종전처럼 중앙집권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경제개혁을 가일층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86년말의 제6차 黨大會에서 탄생된 「구엔·반·린」체제는 「쇄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새로운 개혁을 잇따라 추진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남부지역의 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듯 하다. 따라서 생산활동도 회복, 88년말의 국회보고에 의하면 그해의 국민소득이 농업회복에도 힘입어 5.8%의 성장을 시현했다는 것이다.

분단에서 경제통일로 가는 실험장

실제로 남부지역에서의 경제변모상은 급피치를 보인다. 즉 개인경영이 장려되는 한편 종업원의 고용과 은행대출이 86년 3월부터 활발해졌다. 종전에 남부지방에서는 민간경영활동이 중시되기도 하다가 반대로 사회주의 개조가 강행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난맥상을 빚어왔다.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자유화 조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민간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13년간이나 잠들었던 종전의 기업가와 지식인들이 비즈니스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외국유학에서 돌아 온 젊은이들이 외국경제계의 연결과 기술을 활용하여 퍼스날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제품들을 만들어 수출에 나서고 있다. 또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회사를 비롯해 의류, 봉제, 가구, 식품가공 등의 수출기업이 최근 2년동안 공영 및 민영으로 많이 설립되었다.

1975년 4월에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후 오랫동안 남쪽사람들은 북쪽 사회주의에 대한 열등감과 「미국의 협력자」였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의식이 희박해졌으며, 베트남의 반쪽을 구성하는 대등한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북쪽에 있는 수도 「하노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정책비판과 건설적 제안을 할 만큼 변해가고 있다.

한편 북쪽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눌러 버렸던 북부지도자층도 차제에 남부인들의 기업정신과 경제합리성이 우수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부 사회주의 체제의 낡은 형식·제도등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실감함에 따라 새로운 체제의 거대한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남부지방에 기대한다.

그런 뜻에서, 남북이 통일된 후의 베트남 13년간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따로따로 성장하던 남북 양쪽사람들이 어렵게 한데 어우러져서 「종래의 자본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없던 새로운 타입의 경제시스템을 이루어내도록」 고생한 전인미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이 처음으로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인 것은 1977년으로서 中國보다는 2년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外資法은 규제내용이 복잡해 외국에게 매력적이지 못했고 더욱이 1978년말 베트남이 이웃 캄푸치아를 침공함으로써 서방세계 기업들의 투자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베트남은 호지명, 붕타우, 하이퐁 등 3개市에 프리·존(자유시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미 붕타우市에는 새로운 항구와 창고들, 공업단지가 소규모이지만 정비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의 외국과의 합작사업의욕은 무성하지만, 그들이 外資를 받아들일 만큼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베트남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①美國과 소련간의 데탕트분위기, 中國과 소련간의 관계개선 추진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원조가 향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②과학기술면에서 인근 여러나라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다는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대한 소련원조는 무역액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81~85년에 연평균 9억달러 정도, 86년 이후는 약 14억달러로 추정되는 바 이것이 베트남경제 전반을 지탱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고르바초

〈베트남의 경제지표〉

	1984	1985	1986	1987
實質GDP成長率(%)	8.4	5.6	3.4	2.1
小売物價上昇率(%)	64.9	91.6	487.2	301.3
總流動性성장율(%)	46.1	274.4	211.4	482.2
財政赤字(對GDP比,%)	4.3	4.8	5.1	4.9
輸出額(百萬달러)	665	746	785	880
對自由圈(")	276	336	307	430
輸入額(")	1,560	1,590	2,155	2,191
對自由圈(")	468	459	453	465
經常收支(")	▲ 926	▲ 891	▲ 1,428	▲ 1,361
總合收支(")	▲ 313	▲ 269	▲ 315	▲ 374
外貨準備(")	17	17	15	15
對自由圈(")	5,719	6,740	7,652	8,622
對自由圈(")	1,614	1,624	2,279	2,499

〈註〉 1986年以後 輸入 急増은 統計의 變更에 의한 것으로서, 實質은 비슷한 수준임.

▲은赤字. (자료) IMF

프의 소련정부가 그 대외정책을 「계급투쟁重視」로 부터 「전인류적 이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소련으로서는 이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소련원조에 의존하는 베트남 경제체질을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투자의 장애는 환율과 관계법未備

그런데 외국으로부터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캄푸치아에 대한 마무리도 여기에 관련되며 산업기반이 정비되지 못한 점, 노동법 / 稅法 / 外換管理法 / 회사법등 외자도입 관련법규도 정비되지 못한 상태여서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환율과 암시장환율간의 큰 괴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투자요인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장애의 하나이다.

베트남은 '88년 11월부터 '89년 1월까지 3개월간에 무려 4회나 환율을 평가절하, 공정환율과 암시장과의 격차를 대폭 좁혀 놓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투자가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주려면, 환율을 시장에 맞추어 탄력

적으로 설정해주는 일정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베트남의 캄푸치아 주둔군 철수를 앞둔 요즘은 NIES(신흥공업경제군) ASEAN(동남아연합)은 물론 유럽기업들도 베트남에 대한 접근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곳은 자본주의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많고, 비교적 산업기반이 짜여졌던 남부지방에 집중된다. 베트남정부 발표에 의하면, '88년의 對베트남 외국투자액은 석유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합계 50건에 약 3억달러라 한다.

캄푸치아 주둔군이 철수하고 나면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크게 변한다. 中國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美國과의 국교정상화가 '89년이 지나기 전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日本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원조도 재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정부가 보다 담대하게 대외개방정책을 취하고 동시에 남부지역의 잠재력을 개방하게 되면 아마도 베트남경제가 급속히 재건되는 과정에 들어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은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 明心寶鑑 □



得寵思辱(득총사욕)하고 居安慮危(거안려위)니라.

〈총애를 얻거든 욕됨 것을 생각하고, 안락함에 처거든 위태할 것을 염려해야 한다.〉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 부귀한 사람이 언제까지나 부귀할 수 없고, 빈천한 사람이라도 부귀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실의 여하가 좌우한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든 우선 욕됨 것을 염려하여,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굴고 권력을 남용하면, 벌써 욕됨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또 아무리 부를 누려 몸이 안락할지라도, 항상 위태할 것을 염려하여 더욱 몸과 마음을 닦고 선행을 널리 베풀어 안락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한 몸의 안락만을 꾀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면, 가난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는 것이다.